

바람 vs 인물...양향자-천정배 '리턴매치'



정당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혁명당	무소속
이름	양향자(53)	천정배(65)	유종천(49)	황 윤(56)	정광선(41)
학력	성균관대 대학원 전자전기컴퓨터 공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호남신학대 신학과 졸업	미기재	미기재
경력	(전)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상임선대위원장	(현)제20대 국회의원(광주 서구) (전)법무부장관	(현)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서구지역위원회 위원장	(현)JGP 기능신발 직영 광주광역시 지점장	미기재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4>광주 서구를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와 7선 도전에 나선 현역 국회의원 민생당 천정배 후보가 4년 만에 '리턴매치'를 펼친다. 여기에 정의당 유종천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황윤 후보, 무소속 정광선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이 선거구에선 광주 군공항과 마북동 탄약고 이전 문제 그리고 서구의 구도심 생활인프라와 복지 등이 주요 지역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양향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표발을 다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당 대표가 영입한 양 후보는 최고위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협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양 후보는 "이번 광주 서구를 선거는 당 대당 선거이자 인물 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들은 국민의당 출신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2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후보자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양 후보는 "다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왜곡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 국가공식보고서를 채택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수록해 대한민국 존립의 가치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불의에 맞선 자랑스러운 국민의 행동이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5·18광주정신이 곧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판세 분석

광주 서구를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바람'과 민생당 현역 다선 국회의원의 '인물론'이 맞붙었다. 민주당 양향자 후보와 민생당 천정배 후보의 재력들이 관심이며, 천 후보의 7선 가능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7선은 광주-전남지역 최대선이다.

양 후보가 '민주당 원팀'을 꾸려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민주당원 정권 재창출을 내건 천 후보의 '배수진'이 성공할 지가 최대 변수다.

앞서 민주당 서구를 당내 경선에는 3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했는데 낙선 후보들이 양 캠프에 합류해 본선을 돕는 '원팀' 구성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경선 과정에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고, 각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조직도 분

양, 여당 지지율 앞세워 표발 다지기 천, '호남대통령 만들기' 공약 7선 도전 유종천·황윤·정광선도 출사표 군공항·마북동 탄약고 이전 최대 이슈

주요 공약으로는 삼성 전장산업 유지를 내놓고 있다. 삼성의 전장산업을 유지해 R&D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광주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출세 신세를 앞둔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존 7개 경제정 수준으로 역량을 키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을 개정할 방침이며, 군공항-탄약고 이전,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밖에도 화정3·4동, 풍암동, 금호동 주민을 위해 풍암동 중앙근린공원 내 복지관과 공연장 및 도서관 시설로 건립되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부족 국비를 지원해 건립하는 등의 생활 공약도 발표했다.

천정배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뒤 경기도 안산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4선을 했다. 이어 2013년 광주에 등지를 든 그는 2015년 4·29 광주 서구를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듬해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54.5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6선에 성공했다.

천 후보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개혁의 성패와, 광주와 호남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선거"라며 "천정배는 개혁을 성공시키고 호남의 집권을 이끌 가장 적합한 후보임을 자부하기 때문에 나라와 광주-호남의 미래를 개척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천 후보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광주정신으로 호남대통령을 만들겠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을 '몰빵' 지지한다면 호남 대권주자는 '팽' 당하고 말 것"이라며, "천정배를 선택해서 민주당과 경쟁을 계속하게 해주시면 민주당은 호남 민심을 계속 얻기 위해 호남 출신 대권 주자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호남의 개혁적 유권자들이 뿔뿔 뭉치고 하나로 힘을 합쳐 호남출신 대통령 만들자"며 "호남대통령 만들기를 통해 나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문제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을 잘 뒷받침하고 ▲다음 대선에서 수구파세력의 집권을 저지해 민주정부를 재창출하고 ▲호남의 대통령을 만드는 등 호남의 집권을 통해 호남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등을 짚었다.

또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5·18정신 헌법 명기, 5·18역사왜곡처벌법 및 전두환 불법재산몰수법 제정,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서구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광주군공항과 마북동 탄약고 조기 이전 등도 발표했다.

정의당 유종천 후보는 정의당 광주시장 서구지역위원장, 노회찬 원내대표 정책특보 등을 지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기구와 ▲국가 기후위기 전략본부 설립 법안 발의 ▲기본소득제 추진 ▲중소상공인 상생법안 발의 ▲스쿨존 보행로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등이 있다. 서구에는 무소속 정광선 후보(41)도 표발을 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론조사서 양향자 후보가 앞서...천정배 '배수진' 먹힐지 관심

산돼 있다. 바닥 민심이 환한 시구의원들 지지층 중심의 '공조작'이 부족한 점도 양 후보가 극복해야 할 변수다. 또 과거 양 후보의 '반올림 귀족노조 발인'과 관련, '반노동 인식'에 대한 지역 노동계의 반감도 상당하다. 하지만 서구구의 '민주당 바람'이 거세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는 천 후보를 따돌리고 있고, 최근 선거캠프가 강화되고 있는 등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

천 후보는 풍부한 정치 경험이 강점이다. 또한 최근 같은 당 광주 동남갑 장병완 후보와 '마지막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손을 맞잡으며 지지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들 후보는 ▲민주당개혁세력 정권 재창출 ▲풍부한 국

정경험·인맥으로 광주 발전 ▲뉴DJ 발굴·육성 등을 이루기 위해 '원팀'을 만들어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참여 정부의 법무부(천정배)·기획예산처(장병완) 장관 출신인 이들은 공동 공약을 발굴·발표하고 지역의 예산 확보를 위한 책임자임을 내세워 함께 표발을 다지고 있다.

광주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신인이며, 향후 초선 국회의원들의 빈틈을 다선 국회의원들이 채우면서 정권 재창출을 돕겠다는 천 후보의 배수진이 얼마나 표심을 흔들지도 서구를 총선의 최대 변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하수도정비계획 지각 승인 받아

5년 주기 환경부 승인 원칙 업무 미흡 등 이유 8년만에

광주시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8년만에야 겨우 받아냈다. 전문가들은 변경안 승인절차가 늦어질 경우 하수도 관련 중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5년 주기 승인 계획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2일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도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 기본계획이다.

광주시는 하수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계획안을 수립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엔 업무 미흡 등 각종 이유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국비 7961억원, 지방비 2조 4138억원, 원인가 부담금 36억원 등 총 3조 2135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량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99.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재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의 단계별 분류식화, 오수간선관로 신설, 하수 미처리구역에 대한 오수관로 신설, 노후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계획 등이다.

광주시는 다소 늦긴 했지만, 하수도정비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효율 개선과 민원 최소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광주시의원 등은 그동안 관련 부서에 오수관로 정비 사업 등이 더딘 이유 등을 추궁하기도 했으며, 광주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확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진표 기자 lucky@

"스마트팜 혁신밸리지역 '청년 임대단지' 조성 필요"

전남도, 기획재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최근 기획재정부 주재로 개최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상황 영상회의'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기 정착과 함께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 기업체 등이 참석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둘러 이종용 교수는 "지역별 특성 있는 실증단지 조성", 순천대 신장선 교수는 '산학연관 복합 4차 산업혁명 혁신단지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실장은 '민관협력 데이터 기반 상용서비스 모델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에

대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운영과 시설을 총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초기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운영비의 일부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정착·창업에 대해 "청년 교육생들이 오는 9월부터 20개월간 교육을 받고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후 창업하기 위해, 온실을 저렴하게 임대해 경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배후 지역에 추가 임대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은 "전국 4개 지역(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우리 농업의 미래산업"이라며 "철저한 설계·시공으로 잘 조성돼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시청 1층서 어린이 안전체험하세요"

광주시, 리모델링 완료

광주시는 "시청 청사 1층에 있는 어린이 안전 체험관 기능 향상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코로나19 종합상황을 고려해 정상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는 체험 어린이의 안전성 확보를 기본으로 지하철 위기탈출체험을 신설하고, 화재진압과 화재대피법 등을 중점 교육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화재진압체험은 연출된 화재영상 을 실제상황처럼 체험해 화재발생 상황과 소화기 사용법 등이 교육되도록 개선했으며, 물 사용으로 인한 감전 걱정이 없도록 누전차단이 되는 무감전기(ELPD)를 추가 설치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2015년 11월 개원 이후 매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5세~13세)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Him e Bnong Solar Energy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